



# 원전 생태계에 1,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 산업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10.~2.28.)
- 전년 대비 예산 500억원 증액 ... 기업당 최대 110억원 저금리 용자 지원

최근 AI발(發)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10일(월) 밝혔다.

\* 원전산업 매출(조원) : ('21) 21.6 → ('22) 25.4 → ('23) 32.1 (출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동 사업은 '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 원의 용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되었으며, '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

\*\*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과 연동된 분기별 변동금리 ('25.1분기 기준 1.75%)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320)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창호 (044-203-5325)